

**담당 : 홍보팀 김균섭 사원ㅣ E-mail : media@klpga.org**

**‘2025 오로라월드 레이디스 챔피언십’ 2R 오후조 주요 선수 코멘트**

**최민경, 김리안**

**◈ 대회개요**

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
| 1 | 대 회 명 | 2025 오로라월드 레이디스 챔피언십 |
| 2 | 기 간 | 2025년 7월 31일(목) ~ 8월 3일(일) |
| 3 | 장 소 | 오로라 골프&리조트 [마운틴(OUT) / 레이크(IN)] |
| 4 | 주 최 | 오로라월드(주) |
| 5 | 주 관 | KLPGA(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) |
| 6 | 총 상 금 | 10억 원 (우승상금 1억 8천만 원) |
| 7 | 코스길이 | 파72 / 6,509야드 |
| 8 | 참가인원 | 120명 |
| 9 | 주요  출전선수 | 이예원, 고지우, 노승희, 김민선7, 김민주, 이가영, 박혜준, 박보겸, 유현조  박지영, 한진선, 김시현, 송은아, 정지효, 박민지, 김소이, 성유진, 김수지  김도희(A), 김지영2 등 |
| 10 | 중계방송 | SBS골프, 네이버, 다음카카오, U+모바일tv |
| 11 | 방송일정  (생중계) | [1라운드] 11시 ~ 17시  [2라운드] 11시 ~ 17시  [3라운드] 10시 ~ 16시  [최종라운드] 10시 ~ 16시 |

**◈ 최민경, 2라운드 중간합계 10언더파 134타(67-67) \*공동 선두(19시20분 기준)**

**[상세 프로필]**

[**https://klpga.co.kr/web/profile/mainRecord?playerCode=8277**](https://klpga.co.kr/web/profile/mainRecord?playerCode=8277)

**Q. 경기 소감은?**

1, 2라운드 모두 전반적으로 플레이가 잘 풀려서 편하게 경기했다. 만족스럽고 기분 좋다.

**Q. 생애 첫 우승에 한 걸음 더 다가섰는데?**

매 대회 우승을 목표로 도전한다. 언제나 선두권에서 플레이하고 싶은 욕심이 있는데, 계속 상위권에서 방귀 좀 뀌다보면 좋은 결과가 올 것이라 믿는다. 그래서 내일도 내 플레이에만 집중하겠다.

**Q. 이틀 동안 5타씩 줄였다. 특별히 잘됐던 부분은?**

특별히 잘 쳤다기보다는 코스 전략을 맞춰 플레이한 점이 잘 들어 맞았다. 이 코스에서는 버디를 반드시 잡아야 하는 홀이 명확하게 존재하는데, 그 홀에서 타수를 줄였고 또 지켜야 하는 홀에서는 버디를 해서 전체적으로 좋은 흐름을 만들었다.

**Q. 1라운드와 2라운드에서 버디를 잡은 홀이 전부 달랐는데?**

맞다. 라운드마다 전반과 후반 흐름이 달랐던 것 같다. 전반에 확실히 더 집중했는데, 내일부터는 후반에도 좀 더 집중하겠다.

**Q. 맥콜 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냈다. 강원도와 잘 맞는다고 느끼는가?**

2015년 드림투어에서 우승했을 때도 강원도에 있는 휘닉스cc였다. 또 아버지가 강원도 출신이라서 그런지 강원도에서 열리는 대회에 참가하면 기분이 좋아진다. 좋은 기억이 많아 심리적으로 편안하다.

**Q. 무더위는 괜찮은가?**

크게 덥지 않았고 컨디션도 괜찮았다.

**Q. 남은 이틀 각오는?**

목표는 내 플레이에만 집중하면서 차분하게 풀어가고 싶다. 이 점만 성공적으로 해내면 좋은 결과가 따라올 것 같다.

**Q. 생애 첫 우승을 하게 된다면, 준비한 세리머니가 있나?**

사실 세리머니는 이미 많이 준비했는데, 그중에서 어떤 것이 나올지는 나도 잘 모르겠다. 그 순간 본능에 나를 맡기겠다.

**◈ 김리안, 2라운드 중간합계 10언더파 134타(68-66) \*공동 선두(19시20분 기준)**

**[상세 프로필]**

[**https://klpga.co.kr/web/profile/mainRecord?playerCode=9702**](https://klpga.co.kr/web/profile/mainRecord?playerCode=9702)

**Q. 경기 소감은?**

아직도 믿기지 않아서 꿈 꾸는 기분이다. 한 홀 한 홀 편하게 플레이했는데, 퍼트도 잘 됐고 샷 감도 좋아서 만족스럽다.

**Q. 버디를 6개나 기록했는데, 특별히 잘 된 점이 있다면?**

중거리 퍼트 라인이 잘 보였던 것이 큰 도움됐다. 그리고 전반에는 어머니가 캐디를 하다가 너무 힘들어 해서 후반에는 친한 삼촌에게 부탁했는데, 마음도 더 편했고 퍼트 라인을 아주 정확하게 봐줬다. 알려준 대로 치면 거의 다 들어가서 큰 효과를 봤다.

**Q. 코스는?**

어려운 홀도 있고 쉬운 홀도 있지만, 티샷만 잘 하면 대체적으로 편하게 칠 수 있는 홀이 많다. 그래서 티샷에 신경을 많이 썼던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.

**Q. 부상 당했던 부위는?**

손목 힘줄을 다쳐 연습을 제대로 못했다. 한 3주 정도 휴식하면서 맛있는 음식도 많이 먹고 쉬면서 몸도 마음도 많이 회복했다. 다시 연습을 시작하면서 조금씩 컨디션을 되찾고 있고 손목 상태도 많이 좋아졌다.

**Q. 첫 우승에 대한 욕심은?**

아직은 우승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. 우승을 자꾸 떠올리수록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, 다시 예선을 치른다는 마음으로 편하게 남은 대회도 임할 예정이다.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더 열심히, 최선을 다하겠다.